■ 경제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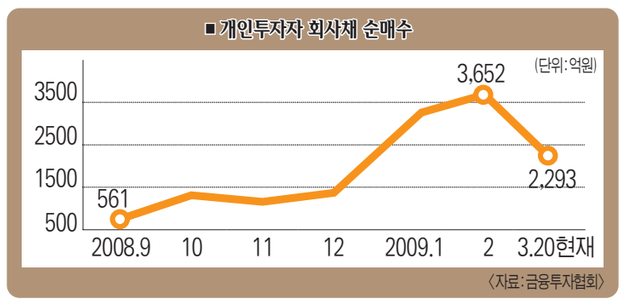
기아차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인기폭발 왜?

연 6.5% 고금리… 개인 자금 몰려

〈은행 예금의 2배〉

4천억 규모 발행에 전국서 8조원 배팅

광주서만 700억…아시아나항공도 추진



정모(43·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지난주 기아차 BW(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 마땅히 돈을 굴릴 곳을 찾지 못해 청약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주 16~17일 실시된 기아차 BW 청약에 우리투자증권 광주지점을 통해 3천만원을 신청해 405만원 어치의 물량을 받았다. 이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경쟁률 7.4대 1에 비례해 405만원 어치의 BW가 지난 19일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나머지 청약금은 환급받은 것이다.

4천억원 규모의 청약에 전국적으로 8조원의 자금이 몰린 이번 기아차 BW의 발행조건은 만기 3년에 연 5.5%의 이율로 표면금리는 1%다. 여기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가격은 주당 6천880원이고 1개월 후인 다음달 19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쉽게말해 사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도 5.5%의 확정금리에 추가 1%의 금리까지 연 6.5% 금리를 3개월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주식으로 전환해 주가 차익까지 얻을수 있다는 얘기다.

405만원을 투자한 정씨의 경우 다음달 200만원(290주) 어치를 기아차 주식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23일 주가(8천80원)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주당 1천200원의 차익이 발생해 한달만에 17.4%인 34만8천원의 수익을 챙길수 있다.

기아차 BW가 인기 폭발하면서 광주지역에서만 2개 증권사에 7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400억원의 청약 자금이 몰린 가운데 대부분이 개인들의 돈이었다.

HMC투자증권 광주지점에는 본사 영업부 다음으로 많은 260억원의 자금이 집중돼 14.7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물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법인 자금까지 몰리면서 모 새마을금고의 경우 50억원을 청약하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이 BW 등 회사채에 몰리면서 올해들어 지난 20일까지 개인이 사들인 회사채는 9천337억원으로 벌써 지난 한해 매수물량의 3분의 2 수준에 달했다.

이처럼 회사채에 개인자금이 몰리는 것은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량 회사채들의 금리가 은행 예금의 2배 이상이 되는데다 신주전환 등 추가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도 만기 수익률 연 10%에 1천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하기로 하고 25~26일 청약을 받을 예정이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MC투자증권 광주지점 위승환 지점장은 "틈새시장으로 채권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라면 투자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3일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28.56포인트(2.44%) 뛴 1,199.50으로 마감됐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직원이 주가 관련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공능력 101~300위권 중소형 건설사

10~20개사 워크아웃·퇴출될 듯

시공능력 101~300위권의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서 10~20개 업체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각 중소건설사의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2차 구조조정 심사 대상인 70개 건설사와 4개 조선사에 대해 막바지 신용위험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5개 건설사의 주채권은행을 담당한 농협은 5개 업체에 대해 C~D등급을 부여키로 잠정 결정했으며 4~5개 업체에 대해서는 B~C 등급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14개 건설사를 맡고 있는 국민은행도 일단 3곳을 C등급으로 분류키로 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측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C등급 이하의 업체 수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12~13개 건설사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도 최소 2~3개 업체가 C등급 이하를 받을 것이나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3개 건설사의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기업은행은 2개 업체에 대해 B등급 이상을 부여했다.

주채권은행들은 막판 심사에서 최종 등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워크아웃 대상 업체 수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채권은행들은 이번 심사 대상 건설사들은 모두 규모가 작은 소형사들로 워크아웃·퇴출 대상 업체 수는 1차 때보다 늘어날 것이지만 파급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선사들 중에서도 한 업체가 C등급 이하를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은 24일까지 주채권은행들이 심사한 1차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놓고 서로 협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 C등급(부실 징후기업) 업체는 워크아웃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

주가 1,200선 바짝

환율 급락…1,300원대 진입

코스피지수가 1,200선 턱밑까지 다가서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해 1,300원대에 재진입했다.

23일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28.56포인트(2.44%) 뛴 1,199.50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8.52포인트(2.13%) 상승한 409.23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약세에도 8.66포인트(0.74%) 상승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수에 상승폭을 키웠으며 한때 1,201.23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다섯번째 도전에도 1,200선 돌파에는 실패했다.

원·달러 환율 안정세, 한국과 미국의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기대, 29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잠정 확정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20.90원 급락한 1,391.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0일(1,382.90원) 이후 40여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ELS 발행 규모 3개월째 증가

국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가 지난해 11월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동양종금증권에 따르면 올 2월 ELS 발행 규모는 4천236억원으로 작년 11월 958억원 이후 12월 1천761억원, 1월 3천674억원 등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ELS 발행 건수도 82건, 141건, 161건, 192건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ELS 발행액 중 공모와 사모 비중은 49%, 51%, 원금 보장과 원금 비보장형 비율은 20%, 80%를 각각 기록했다.

증시 불신과 불안으로 크게 위축됐던 사모 및 원금 비보장 ELS 비중은 작년 12월 이후 2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여 주가 불안 심리가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사모 ELS 비율은 12월 35%, 1월 43%, 2월 51% 등을 상승했고, 원금 비보장 ELS 비율도 51%, 65%, 80% 등으로 증가했다.

동양종금증권 장지현 연구원은 "ELS 발행 규모가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는 주가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점차 완화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